

교육실습 소감문

학과: 컴퓨터교육과

학번:

이름:

실 습 기 간	2015 년 3 월 30 일 ~ 4 월 24 일 (4 주)
실 습 학 교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실 습 과 목	정 보
담 당 학 급	2 학년 2 반
지 도 교 사	교과-오승희 선생님 / 학급-정재남 선생님

이번 학기가 시작되어서 3월 말에 교육실습을 나가기 전까지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5년 전에 졸업한 한대부고에 졸업생으로서가 아니라 교생 선생님이로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에 기대가 되었고, 과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실습 첫 날 월요일, 사립고 특성상 저를 지도해주셨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 많이 남아계셔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고 제가 담당하게 된 2학년 2반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며 설레는 첫 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실습 첫 주에는 수업 참관(하루 4시간) 및 학급 조 · 종례 참관으로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동안 수업을 참관하고 실습 일지와 참관록을 작성하는 것이 처음엔 힘들기도 하였지만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참관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을 보니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습 2주차부터 정보 교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세 학급을 대상으로 총 5차시 수업(15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Microsoft Office Excel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해 수업을 하였는데, 1차시부터 3차시까지는 Excel의 주요함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직접 예제에 적용하며 실습하는 시간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4차시는 Excel 차트를 제작하고 편집하는 법에 대해 수업을 하였고, 5차시는 수행평가를 대비해서 1~3차시 때 배운 Excel 함수에 대해 복습하고 연습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처음 수업을 하였을 때는 30여명의 학생들을 물론, 교과 선생님도 수업을 지켜보고 계셔서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긴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한 두 번 수업 다음부터는 심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긴장하지 않고 수업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간 중간 일상적인 질문도 하고 유머러스한 멘트도 하는 등,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5차시, 총 15시간동안 수업이 주어졌을 때 다른 교과 과목보다 수업을 더 하게 되었다는 점에 불평 아닌 불평을 했었는데, 다 지나고 나니 15시간 동안의 수업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큰 경험이자 저를 한층 더 성장시켜준 기회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

생들 앞에 섰을 때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능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특정 업무가 주어졌을 때 더럭 겁부터 들 필요 없이 준비한 만큼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차시 수업 때는 1학년 10,11,12반 학생들과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사실이 마냥 아쉽기만 했습니다. 각 반의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그 동안 수업을 잘 들어주고 따라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을 때,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감사함과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을 표현해서 그 동안의 제 수업이 더욱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교생실습 4주차에는 담당 학급인 2학년 2반 학생들에게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우리반임에도 불구하고, 한대부고에서는 1학년 학생들만 정보 과목 수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번도 하지 못해서 3주차까지는 많이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친교활동이나 조종레 시간 혹은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장난도 치는 등 친목 시간을 가졌지만, 더 챙겨주지 못한 아쉬움에 4주차에는 2학년 2반 수업들로 계속 참관하고 학생들과 상담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반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서 요즘 학생들이 갖는 고민들은 무엇이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수업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고민 상담 · 진로 상담을 위한 시스템이 더욱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큰 학업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비교과활동이나 기타 친목활동처럼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의 필요성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육실습 마지막 날, 한 달 동안 함께 했던 2학년 2반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선물들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주었을 때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4주 동안의 기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고, 학생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실습 첫 날 우리 반 학생들에게 처음 소개를 한 순간부터 마지막 이 순간까지, 그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되었음에 감사했습니다.